



특집 3

동양하이몰드

각 제품별 특성있는 디자인 생산 펄프 몰드 관련 정부시책 추진요구

동양하이몰드는 지난 93년 초 완충재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펄프몰드 완충재를 생산하게 되었다.

현재 동양하이몰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LG전자의 14·15인치 모니터와 청소기, 대우통신의 유럽수출용 FAX용, 삼성전기 CA-TV 컨버터, 중앙전자의 7인치 모니터, 국제전자 무전기 세트 등에 적용되고 있다.

펄프몰드 완충재의 경우 폐지를 이용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수거가 용이하므로 환경에 무해하다. 또한 포장재의 경우 부피가 크지만 완충재의 경우 포겔 수 있어 부피가 적어 공간활용이 용이하다.

동양하이몰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은 각 제품별로 특성있는 디자인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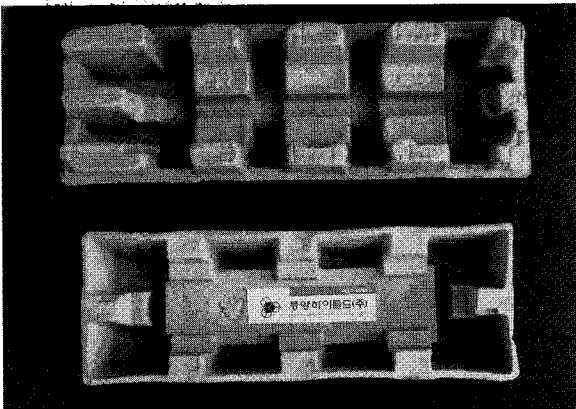
는 것이다. 현재 생산규모는 월 20일정도 분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93년 당시 발표된 법적 규제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대기업 위주로 펄프몰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외전시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펄프몰드는 가격적으로 스티로폴 완충재보다 1.5~2배정도 상한가이고 스티로폴 완충재의 경우 공장생산 제조공정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펄프몰드의 경우 주문생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펄프몰드 완충재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며 93년 정부시책을 발표한 후 펄프몰드 생산업체가 난립했지만 그 이후 법안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시장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동양하이몰드의 김대원 이사는 앞으로 2~3년간 이러한 시장의 불황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러나 앞으로 수출이 자율화되고 활발해지면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펄프몰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국내 유저들의 의식개혁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 동양하이몰드에서 생산하는 완충포장재